

폭력의 평범성으로부터의 탈주: 『채식주의자』의 영혜와 인혜의 주체성, 욕망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진만
(영남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이 글은 『채식주의자』에서 한강이 어떻게 영혜와 인혜의 내적 폭력 속에서 폭력의 평범성을 다루고 나아가 그 폭력으로부터의 변화와 탈주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는지 고찰한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적 개념에서 파생된 '폭력의 평범성'은 이들의 내적인 정신-신체적 폭력(고기나 동물성에 대한 공포로 인한 거식증), 공격성, 자학을 드러낸다. 무의식이나 억압된 외상적 기억(혹은 꿈), 그 기억의 연캐니하고 사후적으로 지연되는 귀환, 그에 잇따른 고통, 다양한 증상들, 소외, 분리, 주체화, 욕망의 재편에 대한 이 글의 논의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적 사유를 참조한다. 이런 접근은 폭력이 우리 일상에 만연하고 어느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한강의 주된 우려 뿐만 아니라 그 폭력에 대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저자의 진지한 탐구를 밝히는데 기여한다. 두 자매는 가부장적으로 각인된 가족과 사회의 폭력에 대한 반응과 뒤얽힌 이들의 내적 폭력을 깨닫고 절박하게 그 폭력의 굴레로부터 탈출하려 시도한다. 주체성과 욕망 차원의 이들의 이런 변화는 영혜가 가부장-상징계 영역에서 전적으로 물러서며 궁극적으로 나무와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인혜가 그 영역 안에 남아서 향후 저항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슬개 같은 검은 새를 끈질기게 바라보는 그녀의 응시에서 각각 시각화된다.

주제어 : 한강, 『채식주의자』, 폭력의 평범성, 주체화, 욕망, 탈주

I. 머리말

『채식주의자』가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영역본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후 2016년 맨부커 상의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을 때, 한강은 크리스 리(Krys Lee)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문학적 관심사가 인간의 폭력에 관한 문제임을 밝힌다. 그녀에 따르면, 이런 관심사에서 비롯되어 『채식주의자』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편재하는 위험한 폭력을 거부하는 한 여성을 그린다. 그녀의 관점에서 폭력은 인간의 일부이며, 그런 까닭에 그녀의 “관심은 일상의 삶에 널리 퍼진 폭력으로 확장된다”(my preoccupation extends to the violence that prevails in daily life) (Lee 2016:64). 그러나 한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폭력에 맞서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인간의 성향에 대해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다(Lee 2016:64). 달리 말하면, 그녀는 폭력(성)이 우리 인간 내부에 지극히 친숙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의 인식, 그리고 그런 폭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고 치열하게 탐색한다. 그녀의 이런 관심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가진 강연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재확인된다. 그녀는 이렇게 질문한다. “세 번째 장편소설인 <채식주의자>를 쓰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나는 그렇게 몇 개의 고통스런 질문들 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한강 2004:2). 오랜 시간동안 폭력에 관해 그녀가 이토록 끈질기고 치열하게 탐색해온 점을 고려하면, 『채식주의자』에 대한 논의가 폭력(성)을 천착하는 것은 한강의 문학에 대한 이해에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유효성과 정당성 그리고 의의를 확보할 것이다.

폭력(성)에 대한 작가의 관심에 조응하여 이제까지 이 소설에 대한 연구는 대략 한국의 가부장중심주의와 폭력의 연관성, 영혜의 몸을 들

리싼(젠더적) 폭력과 억압, 그리고 채식주의를 통해 이런 폭력의 억압적 세계에 저항하는 영혜의 행위가 갖는 신체 정치적 의의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한 접근으로서 다양한 비평적 담론, 예컨대 젠더 이론과 페미니즘, 생태주의, 권력담론 비평, 사회심리학적 비평의 담론들이 폭넓고 깊게 적용되어 왔다.¹⁾

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은 영혜와/혹은 인혜 외부의 사회에 퍼져있는 “외부적” 폭력에 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 인물 “내부의” 폭력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한강의 언급, 즉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고려하면, 그녀가 고려한 ‘폭력’의 주제는 비단 외부적 차원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내적 폭력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해, 이 글은 폭력의 평범성 혹은 편재성을 “사실상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혜와 인혜”(한강 2004:2)의 내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내적 폭력의 문제로부터 이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려 한다.

이 논의를 위해, 이 글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중요한 정치철학적 개념인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실마리 삼아 출발하려 한다. 인간의 악함이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악에 토대를 두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악은 생각의 부재, 어떤 체제에 복종하는 평범한 태도 속에서 비롯된다는 이 사고는 『채식주의자』에 드러날 수 있는 폭력의 평범성 문제를 숙고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이런 적용은 두 인물에 내재해있는 폭력성, 그것에 대한 이들의 인식 혹은 각성, 그리고 주체성과 욕망의 차원에서 그 폭력으로부터 탈주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는 데 없어서는

1) 이 외에도 『채식주의자』 연구동향에 관한 이소연(2022:93n1)의 언급에 따르면, 이 소설의 번역에 대한 연구, 신화적 원형, 이미지, 모티프를 통한 접근, 그리고 여성의 몸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성과가 누적되었다.

안될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일상의 삶에서 흔하게 폭력적 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아렌트의 정치철학적 차원의 주목은 그 영역이 확장되어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즉 가족/사회 공동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외적/내적 차원의 폭력의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분명 적절하고 유용한 틀을 마련해줄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채식주의자』의 두 주요 인물인 영혜와 인혜가 가부장 사회에 만연하는 폭력 속에서 각자 자신의 내적 폭력의 평범성을 역시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절박한 시도를 모색하고 있음을 영혜의 식물(나무)과의 동일시, 검은 새의 비상을 응시하는 인혜에게서 규명한다. 그리고 의미화의 영역에서 물러서 단절을 선택하는 영혜와 달리 상징계 안에서 저항의 비전을 내비치는 인혜는 자신이 순응해온 기존의 가부장-상징계 대타자로부터 분리를 감행해 자신의 새로운 주체성과 욕망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됨을 밝힐 것이다. 이 글에서 폭력의 평범성에 직면해 영혜와 인혜가 겪는 외상적 고통, 주체성과 욕망의 형성 그리고 변화의 문제를 논의할 때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적 사유를 고려하는 것은 심리주의적 소설로 간주될 수 있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아주 적절하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연결되거나 폭력의 평범성과 연관지어져 본격적으로 논의된 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논의는 『채식주의자』에서 다루어지는 폭력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확장시키고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²⁾

2) 최근 논의에서 고윤경(2025:212)은 많은 독자들이 『채식주의자』를 읽고 불편해하는 원인이 “일상 그 자체에 내재한 폭력”으로 인한 영혜의 고통, 외상, 분열의 재현에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보기 드물게 폭력의 평범성에 주목한다.

II. 폭력의 평범성: 영혜와 인혜의 내적 폭력

이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송책임을 맡은 나치 관료로서 유대인 대학살의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은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예루살렘에 압송된 후 1961년에 재판을 받는다. 아렌트는 이 재판 전과정을 취재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상세한 기록으로 남긴다. 여기에서 아렌트는 그에 대한 자신의 정치철학적 사유를 ‘악의 평범성’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한다(아렌트 2006:349). 그가 바라본 아이히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하거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열정적으로 살상한 주범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고, 악이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한다. 히틀러 총통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아이히만의 생각으로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지만, 그녀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의 문제와 별개로 그 행위자는 극악무도하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으며 그의 유일한 특징은 사유의 진정한 불능성이라 진단한다(아렌트 2006:37, 아렌트 2019:293-294). 법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이 그저 법과 의무를 준수하며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거리낌 없이 되풀이해 말했고, 아렌트(2006:301)는 히틀러 총통의 의지에 절대복종했던 데 따른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그에게서 “순전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 즉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끔찍한 어리석음을 발견한다. 특히 그녀는 그의 생각할 수 없는 무능력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무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한다(아렌트 2006:1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한국어로 번역한 김선옥(2006:15)은 아렌트가 제시한 악의 평범성이란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banality’를 “평범하고 또 익숙할 정도로 많이 접해서 진부해졌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악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개념을

말할 때 그녀가 힘주어 강조한 것이 타자 중심적 윤리의 필요성임을 논의하는 정화열(2006:43)은 아이히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라는 “폭력은 차이를 지우려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임을 강조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이히만이 드러낸 악의 평범성은 곧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통념과 다른 생각이나 행위를 하는 이웃에 대해 혐오하며 생각 없이 가하게 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폭력의 평범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폭력은 우리가 생각 없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아주 익숙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아렌트의 통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이며, 『채식주의자』에 재현된 폭력을 논의하는 이 글 역시 이런 폭력의 평범성이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³⁾

1. 영혜의 경우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글은 이제까지 주로 다루어진 외부적 폭력, 즉 영혜와 인혜 두 자매를 둘러싼 가정과 사회의 폭력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간과된 것으로서 이들 내부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폭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채식주의자』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폭력에 직면해 영혜는 전적으로 외부적 폭력의 희생자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 내부에 거주하는 낯설면서도 친밀한 폭력성과 조우한다.

3부로 구성된 『채식주의자』의 제 1부 「채식주의자」에는 영혜를 둘러싼 외부적 폭력과 그에 조응하는 그녀 내부의 폭력성이 상호 연관되어

3) 비나 다스(Veena Das)는 자신의 에스노그래피 『삶과 말』(*Life and Words*)에서 현대 인도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납치, 성폭력, 살인, 학살 등에 따른 고통을 다루면서, 폭력은 어떤 사건(event)이 아니라 일상의 폭력(everyday violence)임을 강조한다(Das 2007:13, 장윤원 2025:124). 즉, 폭력, 외상은 전쟁이나 재난 같은 극단적인 사건보다 사소해보이는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스의 이런 민족지학적 명제도 폭력의 평범성이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모티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권과 윤희리(2020)의 논의에 크게 빚을 진다. 이들은 『채식주의자』의 제 1부 「채식주의자」에서 외부적 자극과 영혜의 꿈(혹은 독백)의 연관성에 크게 주목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 작품은 5개의 외부적 자극과 그에 따른 영혜의 꿈이나 독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자극은 어느 아침에 남편이 영혜에게 꾸물거리며 요리한다고 나무라며 언어적 폭력으로 다그치는 사건이다. 이것은 가부장-상징계 영역에 내재하는 폭력, 즉 “밥을 차려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누이, 혹은 파출부 같은 존재로”(한강 2007:46) 아내를 취급하는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영혜는 고기덩어리가 수도 없이 매달린 도살장 같은 헛간에서 피땀은 고기를 씹는, 자신의 것인듯한 얼굴이 핏물 고인 웅덩이에 비친 것을 바라보는 첫 번째 꿈을 꾸다. 이 꿈 속에서 “하지만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한강 2007:20)라는 영혜의 서술을 고려하면, 그녀는 스스로의 폭력성과 공격성에 놀라 공포나 불안에 빠졌고 죄의식을 갖고 있다. 영혜는 자신의 이 끔찍한 느낌을 친숙하면서도 낯선 것으로 인지한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한강 2007:21). 이것은 스미스의 영역본에도 “언캐니한 느낌”(uncanny feeling)(Han 2015:20)으로 분명하게 어휘선택이 되어 있듯이,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 맥락에서 무의식적 차원의 공격성이나 죽음충동, 혹은 실재계(the real) 차원의 언캐니한 감정을 영혜가 언뜻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채식주의자』에는 영혜가 남편에게 갖는 무의식적 공격성, 증오심, 혹은 폭력적 충동과 그에 대한 죄의식이 역학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갈등하며 대립하는 긴장상태가 잘 묘사된다. 그리고 “제기랄, 그렇게 꾸물대고 있을 거야”(한강 2007:29)라는 남편의 언어적 폭력 때문에 고기를 썰던 영혜가 놀라 칼에 손을 베기에 이르고 그래서 그 피를 빨아먹었는데 들끓는 맛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진 경험으로 이어지는 재현 속에서, ‘고기’, ‘칼’, ‘피’, ‘고통’, ‘공격성’, ‘증

오’, ‘죄의식’은 하나의 심리적 실타래로 연결된다.⁴⁾

두 번째의 자극은 한정식 집에서 일어난다. 영혜 남편인 정씨가 사회의 권력과 위계질서를 상징할 수 있는 회사의 간부들과 부부 동반으로 함께 하는 회식 자리에서 영혜는 육식을 거부한다. 이에 참석자들은 그녀의 채식주의가 비정상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드러냄으로써, 그녀의 채식이 갖는 예외적 이유나 특이성을 이해할 수 없고 허용도 하지 않는 폭력적 배제의 세계를 잘 대변해준다. 사회의 통념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쉽게 배제하는 사회의 사려 없는 폭력성, 혹은 폭력의 평범성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후 그녀는 삼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된다. 더불어 그녀는 자신이 죽인 대상이 자신의 모친이나 언니(인혜)일 수 있음을 느끼고 두려워한다. 어머니와 언니가 도마에 칼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가 두려워 했던 이유는 가부장-상징계의 위계질서와 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가정적인 여성들에 대한 그녀의 증오심에 본인 스스로 놀랐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즉, 그녀는 자신 속의 끔찍한 폭력성에 몸서리친다. 한강은 이어 영혜에게 가해지는 세 번째의 자극을 그린다. 그것은 관계를 원치 않던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제적 섹스로 인한 침범이다(이현권, 윤희리 2020:87). 여기에서 한강(2007:46)은 영혜를 남편의 성욕을 해소해주는 “중군위안부”로 묘사해 가부장-상징계 영역에 평범하게 퍼진 남편의 가부장적 폭력을 고발한다. 이후 그녀는 누군가의

4) 이현권과 윤희리(2020:86)에 따르면, 영혜의 끔찍한 외상적 꿈은 “억압된 어릴적 기억과 환상이 꿈으로 반복되었고, 전날의 일을 통해 활성화된 것이다.” 한귀은(2008:292)도 “영혜의 외상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오랫동안 발현되지 않다가 결혼 후 남편에 의해 일깨워진다”고 언급하면서, 시간적으로 뒤에 일어난(전날의) 일이 사후적으로 이전의 외상적인 기억을 꿈으로 소환했음을 주목한다. 이처럼 꿈이 일상의 경험과 과거 기억의 흔적이 결합해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과거 경험의 의미가 뒤늦게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후성(Nachträglichkeit)에 관한 프로이트적 통찰이 한강의 이 소설에서 분명하게 발견된다는 점은 이 작품을 충분히 심리주의적 소설로도 읽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영혜가 어릴 때 외상적 기억이 무엇이었는지는 환동이의 죽음에 얽힌 유년기 기억에 대해 그녀가 이후에 들려주는 독백에서 드러난다.

목을 고기 썰듯 자르는 끔찍한 폭력의 꿈을 꾸게 된다. 이것은 외부적 폭력에 대한 그녀의 인과적 반응으로서의 폭력성이기도 하며, 그녀 내부에 잠재하는 폭력성이 외부적 폭력의 자극 때문에 발현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녀는 또한 정육점 앞을 지날 때 침이 고여 스스로 입을 틀어막는다고 고백한다. “입 안에 침이 고여. 정육점 앞을 지날 때 나는 입을 막아. 혀뿌리부터 차올라 입술을 적시는 침 때문에. 입술 사이로 새어나와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한강 2007:49). 뒤이어 네 번째 자극이자 『채식주의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충격적 장면이 일어난다. 이것은 탕수육을 억지로 그녀의 입에 쑤셔넣고 따귀를 때리는 부친의 폭력, 즉 “아버지가 중심이 된 가부장 집단의 폭력”(이현권, 윤희리 2020:87)의 장면이다. 이에 “영혜는 손목을 긋는 충동적인 행위로 자신을 방어”(이현권, 윤희리 2020:87)하는데, 이것은 외부적 폭력에 대해 그녀가 방어적으로 선택한 내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그녀는 독백 속에서 어릴 적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 흰둥이에 얽힌 외상적인 기억을 소환한다. 즉 부친에게 맞은 그녀는 그에게 매질을 많이 당하던 아홉살 때의 기억을 무의식중에 호출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부친이 흰둥이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죽인 끔찍한 폭력에 관한 기억이다(한강 2007:62-63). 놀랍게도 프로이트적 용어로 ‘원초적 장면’(primal scene) 처럼 외상적으로 떠오른 이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자신 내부의 폭력성을 또한 인식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흰둥이를 잔인하게 죽인 부친의 폭력 뿐 아니라, 자신을 물었던 흰둥이를 영혜 역시 증오하며 그 고기국을 맛있게 먹었고 그때 피 토하던 흰둥이의 눈이 떠올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점, 즉 영혜 내부의 폭력성이다. 이 장면은 한강이 갖는 문제의식, 즉 폭력성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성과 편재성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며, 더 나아가 그런 폭력성에 대한 영혜 스스로의 반응이 심리적으로 복합적이라는 것을 또한 잘 보여준다. 그녀의 독백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한강 2007:63)는 얼마든지 방어적으로 읽힐 수 있다. 그녀는 이 말을 통해 자

신의 폭력성과 그에 대한 죄책감 혹은 공포심을 동시에 암시한다. 영혜가 겪는 일상의 폭력(부친과 남편의 폭력)은 이처럼 그녀의 유년기 외상적 기억, 즉 흰둥이에 얽힌 원초적 장면을 뒤늦게 사후적으로 소화하며 그녀가 자신 내부의 폭력성과 충격적으로 조우하게 만든다. 이때 그녀가 갖는 죄의식은 고기(동물성)에 대한 공포증, 혹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채식의 증상(symptom)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죄책감과 연관해 그녀가 내적 폭력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은 그녀를 향한 다섯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두드러진다. 『채식주의자』 1부의 후반부에서 영혜 모친은 병원에 입원한 그녀를 위해 흑염소 즙을 가져와 억지로 먹인다. 이것이 다섯 번째 자극이다. 한강은 모성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딸에게 강요하는 것이 얼마든지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머니가 “먹어라. 이 에미 소원이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지 않던?”(한강 2007:69) 하며 흑염소 즙을 한약으로 속여 먹이려는 것은 영혜가 어떤 이유로 고기를 거부하고 먹지 못하는지 몰이해—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표현을 빌면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inability to think)”(아렌트 2006:106)—의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배타적으로 강요하는 폭력을 부지불식간에 일상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폭력은 이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친밀하게 모녀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목격된다. 분명, 한강은 가부장-상징계 영역에 자연스럽게 만연한 폭력, 즉 채식은 비정상이고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것(goodness)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제하는 폭력적 태도가 모성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언캐니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마지막 자극의 결과 영혜는 그동안 자신이 먹은 고기로 명치가 아픔을 느끼며 자신의 가슴 속 덩어리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구토 증상으로 드러낸다(한강 2007:72).

결과적으로, 1부 『채식주의자』의 주요한 이슈는 이 소설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가부장-상징계 영역 속에 내재하는 폭력 때문이고 그것으

로 영혜가 고통 받지만 그녀 역시 그 폭력성을 자신 속에 하나의 심리적 현실(psychological reality)로서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영혜의 내적 폭력의 평범성이다. 외부적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그녀가 경험하면, 그에 상응하여 그녀의 내부적 폭력성이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발동한다. 이것은 존재의 외부와 내부에 편재하는 폭력의 평범성에 관한 저자의 문제의식을 잘 반영한다.

2. 인혜의 경우

인혜는 동생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인혜의 고통이 잘 형상화된 부분은 그녀의 꿈에 관한 서술이다. “거울 속 자신의 왼쪽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얼른 손을 들어 피를 닦아냈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어쩐 일인지 손을 움직이지 않고, 선혈이 흐르는 자신의 눈을 우두커니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다”(한강 2007:186). 영혜의 채식주의로 빚어진 부친의 폭력과 영혜의 자해, 정신병동에 수용되는 사건을 통해 그 시간 전후로 인혜가 소외된 삶을 살아온 지난 모습을 뒤돌아보는 데에서 그녀의 고통은 면면히 그려진다. 인혜가 꾸는 꿈은 그녀의 고통에서 비롯된 피눈물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인혜의 고통은 영혜의 고통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영혜의 경우 원하지 않은 외부적 폭력에 그녀가 고통받는 점이 두드러진다면, 인혜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그 고통을 자초하고 견디려 한 부분이 대두된다. 인혜는 부부간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관계 아닌 관계’를 유지하며, 비디오 예술을 한다는 명분으로 특별한 수입 없이 자신의 세계에만 몰두해있는 남편을 방관하고 묵인한다. 그녀는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책임한 남편을 비난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가부장 남성중심의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그녀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좋은 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묵묵히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지우를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하는 인혜는 억척스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다. 그런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의 피곤해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지친 모습을 발견한다(한강 2007:192-193). 『채식주의자』 제 3부인 「나무불꽃」에서 그러지는 인혜는 아픈 아들 지우를 돌보느라 3개월 동안 1시간 이상 이어서 자본 적 없이 지친 상태이다. 그리고 제 2부인 「몽고반점」에서 그려진 것으로서 그녀의 남편과 여동생 영혜 사이에 벌어진 성적 사건을 건디며 가게를 꾸러가는 인혜는 영혜가 정신병원에서 실종되었다가 다시 발견되고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되는 일을 계기로 자신의 모습을 거리를 두고 되돌아보게 된다(한강 2007:203-204). 그녀는 인내와 성실의 태도로 일관하며 타인의 눈에 그저 좋은 딸, 언니, 누나, 아내, 엄마, 가게를 꾸리는 생활인으로 살아 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인혜의 고통은 기존 사회체계에서 우러러보거나 좋다고 여기는 일종의 ‘선’에 대해 그녀가 추종하고 순응한 데 기인했음이 그녀가 결혼한 이유를 스스로 회고해보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그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것을 부지중에 알면서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 후 그녀에게는 자신을 좀더 위로 끌어올려줄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비록 그가 하는 일은 경제적 보탬이 되지 않았지만, 교육자와 의사가 대부분인 그의 집안 분위기를 그녀는 좋아했다.” (한강 2007:232, 필자의 강조)⁵⁾

이 재현은 대상선택에서 드러나는 인혜의 나르시시즘 구조를 드러낸다. 그녀가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것 같은 비디오 예술가와 결혼한 것은 그의 집안 다수가 교육자이자 의사였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에게 나르시시즘이 원초적으로 존재하는데 사랑에 빠

5) 이 인용문은 영역본에는 빠져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결코 스미스의 성과와 기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인용은 인혜의 상승욕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영역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

지면 나르시시즘은 그 외부적 대상에게로 향하며, 관계가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 다시 자신에게로 회귀한다. 그리고 대상 선택은 의존성 애착형(anaclitic or attachment type)과 나르시시즘형(narcissistic type)으로 크게 나뉘는데, 의존성 애착형이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혹은 생존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나르시시즘형은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대상선택을 하는 유형으로서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화된 모습 혹은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대신 구현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Freud 1955:87-88). 『채식주의자』에서 인혜는 나르시시즘형 대상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에게서 교육자, 의사는 교양이나 지적 권위의 구현자들이기에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 교육자, 의사는 인혜의 이상적 자아가 외부적으로 구현된 존재이다. 인혜는 본인 스스로가 되지 못한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비디오 예술가 집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결혼할 당시 인혜는 비디오 예술가를 사랑했다기보다 그 남자의 세계에 귀속되어 자기 자신을 더 가치있게 느끼고 싶은 욕망에 지배당했다 할 수 있다.

인혜의 이런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가 될 대상을 하나의 존재로 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 이 때 상대방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인혜의 자존감도 덩달아 붕괴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닌다. 영혜와의 성적인 사건으로 무너진 남편을 보며 인혜는 자신의 선택이 사랑이 아니라 그의 집안의 사회적 지위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그런 선택이 그녀에게 여전히 고통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통감한다. 즉, 인혜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믿음 없이 결혼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없이 대상을 선택해 결국 스스로에게 헤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내적 폭력을 행사한 셈이다.

역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남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치욕을 느끼는 인혜에게서 독자 역시 그녀의 고통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녀는 가게

일로 지친 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채웠던 기억을 떠올린다. 정말 피곤하다는 그녀의 말에 “잠깐만 참아”(한강 2007:240) 하며 끝내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남편에게서 그녀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느끼고 “찾추전자의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싶어” 했다(한강 2007:240). 그런데도 그녀는 남편 말대로 정말 참아가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이런 인내는 그녀가 스스로에게 가한 고통에 다름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은 그녀의 내적 폭력의 증거이다. 인내하는 삶을 사는 자신에 대한 증오로 인해 끓는 물로 자해를 하고 싶었던 인혜는 실제 자해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과도로 손목을 그은 영혜만큼 스스로에게 공격성과 폭력을 드러낸 것이다.

인혜의 내적 폭력은 그녀가 국철 왕십리역 실외승강장에서 차체 앞으로 몸을 내던질 것 같은 자살충동에 휩싸이거나 숲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던 결심의 순간에 더욱 크게 두드러진다. 지우의 방에 장식해 걸어놓았던 모빌을 치우며 남은 끈을 바지주머니에 챙겨 뒷산으로 올라간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줄 나무를 찾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걷지 않고 결국 발걸음을 되돌리는 인혜의 선택은 그녀가 향후 폭력으로부터 탈주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이후에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혜가 자초했던 견디는 삶의 인내가 스스로 고통을 지속시키고 연장하는 내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인혜의 인내하는 삶, 즉 참고 버티며 좋은 아내와 엄마로 남으려는 삶은 라캉의 정신분석적 사유의 맥락 속에서 보면 진정한 욕망을 포기하고 대타자의 선을 따르는 삶이며, 고통의 연속이다. 라캉(1997:321)에 따르면 “사람이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 물러설 때이다”(the only thing one can be guilty of is giving ground relative to one's desire). 즉 사회적 압력과 요구 앞에 자신의 욕망에 대한 사려깊음 없이 그 욕망을 배반하고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윤리적 죄의식의 근원이 된다. 이런 점에서 그녀가

스스로에게 가한 공격성, 혹은 프로이트적 용어를 빌면 스스로에게 가하는 초자아의 가혹한 공격성은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가부장-상징계 대타자에 부합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던 데 따른 죄의식과 연관된 내적 폭력의 평범성이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이 소설은 인혜가 진정한 사랑이나 욕망이 원하는 바에 대한 진지한 숙고 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을 과시하고 드높이는 수단으로서 대상을 선택했던 것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한강 2007:203)로서 사회적 성공만을 쫓았던 점들이 결국엔 자신에게 커다란 고통을 초래하는 ‘내적 폭력’에 다름 아님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그녀의 고통이란 사회적 대타자의 시선 속에 비춰지는 선을 위해 힘겹게 끌려온 삶에서 겪는 상실감, 허무함과 함께 하는 고통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떠올린다면, 인혜가 갖는 내적 폭력성은 그녀의 사려 깊지 못함과 가부장-상징계 질서에 순응하고 추종만 하려 했던 평범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III. 폭력의 평범성으로부터의 탈주

앞서 언급했듯이,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와 인혜는 가정과 사회의 차원에서 가해지는 외부적 폭력에 고통받지만, 동시에 그에 조응하여 자신 내부에 거주하는 언캐니한 폭력성과 맞닥뜨린다. 그런데 이런 외적/내적 폭력의 평범성과 편재성이 『채식주의자』에서 폭력의 문제와 관련해 저자가 재현하려는 궁극적 지점인가? 이 소설은 그런 폭력에 맞서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는 저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Lee 2016:64). 어떤 점에서 그러하며 그것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영혜와 인혜의 경우를 각각 들여다보려 한다.

1. 영혜의 식물되기: 가부장-상징계로부터의 물러섬

『채식주의자』에서 독자의 마음에 가장 인상 깊게 각인될 수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제 3부 「나무불꽃」에서 영혜가 물구나무서서 자신을 나무와 동일시하는 장면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제 2부 「몽고반점」에서 영혜가 꽃이 그려진 몸으로 그녀 집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이전 「채식주의자」에서 역시 상의를 탈의하고 병원 분수대 옆 벤치에서 햇살을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의미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점점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처럼 되길 선택하는 그녀의 의지는 이 작품의 주요 주제인 가부장-상징계 세계에 편재하는 폭력의 평범성과 상관적이다. 그녀의 심리 세계에서 동물성(animality)은 특히 고기와 연결되며, 그 고기는 그녀의 개인사와 경험 안에서 ‘칼’, ‘피’, ‘고통’, ‘공격성’, ‘증오’, ‘죄의식’ 등을 연상시키며 기표의 연쇄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그녀 마음에 깊이 각인된다. 그런 까닭에 그녀는 그러한 동물성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그 궁극적 해답으로 식물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영혜가 식물과 점점 동일시하는 양상이 대두되기 전에도 그녀는 이미 자신을 둘러싼 폭력성에 저항해 그것으로부터 탈주하려는 시도를 다각적인 증상을 통해 지속하고 있었다. 채식, 불면증, 섹스 거부, 브래지어 착용 거부가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녀에게서 고기는 곧 폭력과 결부된다. 그녀가 아홉 살 때 집에서 기르던 흰둥이가 그녀를 물었고, 이에 부친은 그 개를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다. 맞아 죽는 것보다 달리다 죽는 개가 육질이 부드러하다는 이유로 부친이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그 개가 피거품을 물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가한 사건, 그리고 영혜가 그런 개의 눈과 마주칠 때 그 개를 저주했던 기억은 오랜 시간이 흘러 그녀의 꿈에 동물의 눈으로 형상화되어 귀환한다. “이제는 오분 이상 잠들지 못해, 설핏 의식이 나가자마자 꿈이야. 아니, 꿈이라고도 할 수 없어. 짧은 장면들이 단속적으로 뿔쳐와.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그리고 다시 맹수의 눈. 내 뱃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눈”(한강 2007:50, 원저자의 강조).

영혜의 억압되었던 고통의 기억 흔적이 오랜 시간이 흘러 외상적인 꿈에서 언캐니하게 반복되며 유년기에 생긴 상처의 딱지가 뒤늦게 지연된 방식으로 다시 뜯겨나가는 양상은 ‘억압된 것의 귀환’(return of the repressed), ‘사후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통찰을 환기시킨다. 이런 이유로 영혜는 고기를 먹을 수 없고, 고통과 죄책감이 중층결정된 꿈이 두려워 불면증에 걸린다. 또한 그녀는 남편 몸에서 고기냄새가 난다는 느낌 때문에 부부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그녀는 이미 제 1부 「채식주의자」에서 안 먹고, 안 자고, 섹스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성 혹은 동물성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녀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동물을 도살해 섭취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심리적 잔여물처럼 가슴에 응어리져 명치가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떤 고향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저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한강 2007:72, 원저자의 강조). 그녀는 또한 자신의 둥근 가슴이 남을 해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가슴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세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한강 2007:50, 원저자의 강조). 즉 그녀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그녀를 둘러싼 가부장-상징계 세계에 만연하는 외부적 차원의 폭력성 뿐 아니라 자신 내부에 친밀하면서도 낯설게 자리잡은 폭력성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증상이자 절박한 몸부림이다.

너무 기이하기에 독자의 마음에서 쉽게 잊혀지기 어려운 장면, 즉 영혜가 음식을 전폐하고 여위어가는 몸으로 물구나무서서 나무가 되어간

다고 여기는 장면은 영혜의 정체성의 변화를 명징하게 보여주며, 만일 그녀의 이런 시도를 ‘욕망’이라 표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욕망의 탄생이라 말할 수 있다. 영혜는 축성정신병원에 수용되던 때 그 병원 주변의 나무들에게 시선이 끌리고, 세상의 나무들이 자신의 형제자매 같다고 인혜에게 말한다(한강 2007:209-210). 면회를 간 인혜는 물구나무를 서고 있던 영혜를 보고 충격을 받는데, 이 때 영혜는 나무가 되는 자신의 꿈 얘기를 언니에게 들려준다. 그 꿈은 영혜가 물구나무를 서고 몸에서 나뭇잎이 자라며 손에서 뿌리가 땅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다(한강 2007:216). 꿈은 무의식적 소망충족이라는 프로이트(1953:119, 160)의 명제를 떠올리면, 여기에서 영혜의 꿈은 그녀의 소망충족의 꿈, 즉 나무가 되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라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나무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녀가 폭력과 연합된 동물성으로부터 물러서고 싶은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 동물성은 한 인간으로서의 영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폭력성과 역시 결부되어 있다는 그녀의 심리적 맥락은 결국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한강 2007:224)라고 말하며 자신의 동물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식물과 동일시하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 분명, 영혜가 최종적으로 꾸는 소망충족의 꿈, 즉 나무되기 꿈은 제 1부 「채식주의자」에서 그녀가 반복강박으로 꾸었던 외상적인 꿈(고기, 피, 폭력적인 자신의 모습과 결부되었던 꿈)과 차이가 난다. 이 꿈은 영혜의 변화, 즉 그녀의 정체성과 욕망의 변화 혹은 이행을 입증한다.

영혜가 선택한 나무의 정체성은 기이하며 그것과 동일시하려는 욕망 역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정신병원 의사에 의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그녀는 라캉의 용어를 빌면, ‘폐제’(foreclosure) 즉 ‘아버지의 이름’(the Name-of-the-Father)의 기표를 배제해, 상징계의 의미 영역에서 물러서는 정신병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Lacan 1977a:215). 그런 영혜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인혜는 영혜에게 음식물을 먹이려 한다. 인혜는 어릴 적 수박을 좋아하던 영혜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지만, 영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영혜에게 한 때 인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녀를 패대기치고 싶어 한다. 영혜는 그런 언니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한강 2007:229) 먹기를 강요하거나 주사를 강요하는 의사, 간호사와 별반 별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⁶⁾ 이처럼 영혜는 폭력이 평범하다 못해 진부해질 정도로 일상에 뿌리박혀 널린 가부장-상징계의 영역에서 물러서 세상과 단절한다.⁷⁾

자신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언니에게 말하며 무언가 먹어야 하는 동물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영혜는 햇빛을 원한다. 햇빛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영혜의 나무되기 혹은 식물 되기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다. 그것은 굶어 죽어가는 것이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라는 역설이다. 영혜는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긍정하는 역설을 정신병원에서 “내보내줘. 나, 여기 있기 싫어”(한강 2007:228)라며 언니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에서 더욱 명징하게 보여준다. 과학과 합리주의 혹은 이성 지배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정신병원에서 먹기를 강요하는 의료진은 영혜에게 외부적 폭력의 구현자이며 가부장-상징계의 대타자가 된다.⁸⁾ 그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이 그녀에겐 생물학적, 상징적 차원 모

6) 영혜가 폭력의 평범성으로부터 절박하게 벗어나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몰이해와 무사유(thoughtlessness)를 보여주며, 마지막에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인혜도 그 이전까지는 예외가 아니었다. 고운경(2019:100)도 영혜의 남편, 형부, 언니가 영혜에게 행한 “몰이해의 폭력”을 지적하며 그녀가 “끝까지 타자화 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심지어 “김영혜씨는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축성 정신병원 의사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신과 의사조차 고기를 거부하는 영혜의 증상 저변에 깔린 심리적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한강 2007:206).

7) 이와 유사하게 이소연(2022:99)에 따르면, “영혜는 자신을 특정한 규범, 상징계적 압력에 고정시키는 것에 저항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채식주의자』는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일상적, 사회적인 삶뿐만 아니라 마침내 ‘인간’이라는 범주로부터도 이탈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8) 주지영(2024:322)도 미셸 푸코적 맥락에서 “정신병원은 ‘정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치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신과 육체의 양 측면에 폭력을 가한다”고 지적한다.

두에서 죽음이면서 역설적으로 생명의 추구이다. 바꿔 말해서, ‘폭력’, ‘파괴’, ‘고통’이 난무하는 세계, 즉 가부장사회, 통념의 ‘선’을 강요하는 사회, 라캉적 의미의 ‘대타자’(the Other)의 영역으로부터 탈주하려는 영혜의 욕망은 죽음을 향한 욕망이면서 동시에 삶을 향한 욕망이다.⁹⁾

하지만 이런 역설에도 불구하고 인혜는 영혜가 결국 죽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한강 2007:249). 한강도 영혜의 선택이 유일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인터뷰에서 밝힌다. “우리 모두가 식물이 될 순 없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we can’t all just become plants. We have to live)(Lee 2016:66). 아무리 세상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폭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영혜처럼 그것을 극단적으로 부정해 의미화의 세계에서 물러서는 것이 가능한가? 폭력성에 대한 거부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저자는 잘 알고 있으며, 다른 대안적 가능성을 인혜에게서 모색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영혜가 식물 되기를 통해 가부장-상징계의 폭력적 세계로부터 물러서는 탈주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서 언급하려 한다. 한편으로는 물론 영혜가 폭력적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서의 고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뜻 보기엔 자신의 몸에 대한 또다른 형태의 폭력일 수 있기에 아이러니하다. 이런 점에서 영혜는 그녀가 원하던 것, 즉 폭력성으로부터의 온전한 단절을 이루었다고 보긴 쉽지 않다. 그러나 영혜의 선택은 고기를 거부하고 굶는 데 따른 고통이 그녀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받는 외부적 폭력의 고통보다 차라리 덜 하다는 통렬한 사회적 비판의 성격을 띤다. 더불어 그녀의 식물 되기는 가부장중심의 사회, 통념을 강요하는 숨 막히는 세계에서 한 여성으로서의 영혜가 온전히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유일하게 자신의 몸밖에 없다는 사

9) 이런 맥락에서 영혜를 전적으로 죽음충동과 그것의 파생적 양상으로서 우울증의 새도마조히즘으로만 규정하려는 이인표의 접근은 죽음충동과 삶충동이 온전히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뒤얽혀있는 영혜의 복합적 양상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한다(이인표 2025:239, 241, 244, 247, 248).

회의 일면을 인혜의 목소리로 역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껏 해칠 수 있는 건 네 몸이지.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거지.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한강 2007:259).

2. “검은 새의 비상”을 응시하는 인혜: 그녀의 주체성과 욕망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인혜가 자신의 욕망에 대한 숙고 없이 사회적 기준에서 좋은 것, 우러러 보는 선을 좇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적 폭력의 평범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어느날 저녁 자신의 몸에 “크게 벌어진 상처”가 “갑갑한 구멍”처럼 뚫려 있다고 느낀다(한강 2007:238). 이 상처는 그녀의 상실의 고통을 입증하는 상처이며, 라캉적 맥락에서 상징계에 드러난 실재계의 외상적 공허(emptiness)와 같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에 선한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 대한 숙고 없이 일종의 가식적 베일을 쓰고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 베일은 찢어지고 만다.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명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한강 2007:242). 이것은 그녀의 ‘소외’(alienation)에 대한 자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캉적 맥락에서 이 소외는 주체가 상징계(대타자)의 의미화 영역에 들어서서 대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택해 주체를 형성해내며 불가피하게 겪는 상실과 같다.¹⁰⁾

그러나 한강은 인혜를 전적으로 이런 소외의 상태에 남겨두지 않는다. 유년기에 인혜와 영혜는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영혜

10) 라캉에 따르면, 한 기표(S1)가 다른 기표(S2)에게 주체를 대표하는 상징계 의미화 영역에서 아이는 자신을 적절히 대표하는 기표를 궁극적으로 갖지 못해 주체의 사라짐(*aphanisis*, *fading*)에 직면하는데, 이를 ‘소외’라 한다(Lacan 1977b:210, 236; 정진만 2025:369).

는 집에 돌아가지 말자고 했지만, 인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동생을 데리고 귀가한다(한강 2007:230). 가부장적이고 가족에 대한 매질과 뺨 때림의 폭력이 일상인 부친의 영역, 그 끔찍한 가족의 영역에서 영혜는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인혜는 그런 동생을 다시 그 영역으로 밀어 넣었고 부친의 눈치를 살피며 희생과 인내의 삶을 살았는데, “그 때 말팔로서 실천했던 자신의 성실함은 조속함이 아니라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한강 2007:231). 이처럼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한강 2007:237)고 생각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선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라 믿어왔던, 유아기적 자아였다는 한계를 뒤늦게 깨닫는데, 이것은 그녀의 정체성의 변화를 시사한다. 여기에서 인혜는 통념상의 ‘선’을 따르는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상징계적 주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발버둥 쳤으며 그런 보여 주기식의 연극 같은 삶을 산 것, 즉 가부장사회라는 대타자에 인정받길 원하고 동시에 그 대타자에 종속된 삶을 산 까닭에 중요한 것을 상실한 빈껍데기가 되었음을 인식한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주체와 욕망의 형성에 관한 라캉의 사유안에서의 ‘분리’(separation)를 시사한다. 전적으로 온전한 의미를 지닌 충만한 영역이라 여겼던 대타자가 결국엔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대타자의 영역에 종속된 과거와 달리 의미화의 틈새나 기표의 질서 체계를 공략해 비판적 거리두기를 확보해내는 주체의 변화 과정이 ‘분리’이다(김석 2008:67-68, 양석원 2018:168, 정진만 2025:370).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타자에 종속된 욕망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욕망을 형성해내는 주체의 변화가 곧 주체화(subjectivation)이다(정진만 2025:370). 즉, 이것은 새로운 주체(subject)가 활성화(activation)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주체의 재편과 욕망의 재구축이 『채식주의자』의 인혜에게서 형상화된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모습은 나무되기를 통해 가부장-상징계 혹은 의미화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물러서는 동생의 선택과 다르다. 왜냐하면 인혜는 바로 그 의미화의 영역 안에 남아서 그 질서와 체계의 틈을 공략하며 끈질기게 저항하는 비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품 말

미에 “술개로 보이는 검은 새”(한강 2007:268)의 비상을 응시하는 인혜를 통해 인상적으로 그려진다.

『채식주의자』에서 새는 주요 상징 가운데 하나이다. 인혜가 남편 때문에 고통과 모욕감을 느끼다 뒷산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던 날 새벽에 지우는 엄마가 하얀 새가 되는 꿈을 꾸다. 지우는 그 꿈을 꾸 후 슬펐다고 말하며 울고, 인혜는 자신이 자살을 시도하던 새벽에 아들이 그 꿈을 꾸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한강 2007:265) 의문이 든다. 지우가 꿈에 본 하얀 새는 제 1부 「채식주의자」의 말미에 그려진 털 빠진 동박새를 연상시킨다. 영혜가 병원 앞 벤치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 꼭 움켜쥐다 떨어뜨린 새, 즉 포식자에게 물어뜯긴 듯 “깃털이 군데군데 떨어져나간 작은 동박새”(한강 2007:77)는 폭력의 희생자로서의 영혜의 상관물이 된다. 그리고 이 동박새는 영역본에 제시되듯이 “하얀 눈의 새”(white-eye bird)(Han 2015:60)이다. 이 동박새의 하얀 눈과 마찬가지로 지우의 꿈속에 나타난 하얀 새는 그 하얀 색이 ‘상처받기 쉬운 취약성’을 연상시키면서 남편과의 삶에서 희생되어 나락으로 추락하는 인혜의 고통과 상실을 표현한다.

하지만 축성산의 정신병원을 나와 영혜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나무불꽃」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를 곁에서 지키던 인혜는 먹구름을 향해 날아가는 검은 새를 보게 된다.

“그녀는 고개를 든다. 구급차는 축성산을 벗어나는 마지막 굽잇길을 달려 나가고 있다. 술개로 보이는 검은 새가 먹구름 장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 보인다. 쏘는 듯한 여름햇살이 눈을 찔러, 그녀의 시선은 그 날갯짓을 더 따라가지 못한다.

조용히,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다.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들을 쓰아본다.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 (한강 2007:268)

초록빛 불꽃을 내며 타오르는 듯한 나무들 위로 솔개 같은 검은 새가 비상하는 모습은 인혜의 눈에 너무 눈부시고 강렬하다. 이 이미지는 분명 동박새나 지우 꿈의 새가 연상시키는 희생, 나약함, 슬픔의 하얀 색 이미지와 다르다. 이 검은 새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나약한 상태로 연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인혜의 정체성과 욕망을 강렬하게 시각화한다. 이 검은 새는 털 빠진 동박새처럼 나약하게 죽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높이 비상하는 존재가 되려는 인혜의 새로운 주체성과 욕망을 암시하고 있다.

검은 새는 라캉의 용어로 소외의 주체가 그를 지배하던 대타자로부터 분리해 거리를 두며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새롭게 생성해내는 과정에서 그가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원인으로서의 ‘오브제 아’(*objet a*)의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브제 아’는 인간이 탄생 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부성적 기표를 수용해 가부장-상징계 영역에서 주체로서는 뺏겨져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part of himself), “태반”(placenta)과 같은 것이다(Lacan 1977b:198). 주체는 이 상실을 상징계 대타자가 온전히 메워주고 보상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살지만, 인혜는 그 대타자 역시 결핍이어서 상실의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한다. 그것이 곧 그녀가 겪는 “크게 벌어진 상처”(한강 2007:238)의 고통이며 실재계의 외상적 침입에 따른 상징계의 열개(裂開) 같은 것이다. 상처로 벌어진 이 “깜깜한 구멍”(한강 2007:239)은 주체와 대타자 모두 결여임을 입증하면서 인혜에게서 언젠가 채워지길 기다리는 상실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그녀는 이제 그 잃어버린 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삶과 욕망으로 메우길 선택한다.¹¹⁾ 이처럼 인혜가 대타자로부터 분리를 감행하고 자신

11) 김석에 따르면, 주체와 대타자 양측의 결여가 중첩되는 이중의 지점—‘존재’ 아니면 ‘의미’라는 두 선택지로서의 소외의 벨(vel)—에 ‘오브제 아’가 자리를 점하며, 이 공백이 욕망의 “무한한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김석 2008:67). 대타자로부터 분리를 이루어낸 주체는 자신을 욕망의 주체로 재구축하는 주체화를 보여주며 욕망 선택 면에서 능동성과 자유를 확보하기에 윤리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김석 2008:56).

의 것으로서 되찾으려는 그 잃어버린 대상, 즉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오브제 아)은 소설 속에서 먹구름을 향해 비상하는 “솔개로 보이는 검은 새”(한강 2007:268)로 구현된다. 이 검은 새의 비상을 응시하는 인혜에게서 독자는 향후 그녀가 눈부신 그 새를 그녀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늘 마음 속에 품으며 살아갈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채식주의자』의 이 결말은 인혜가 자신을 새로운 주체로 재편해내는 주체화의 능동성과 새로운 욕망의 적극적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는 윤리를 동시에 시사한다.

이 검은 새가 먹구름을 향해 날아간다는 묘사에서 한강은 물론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인혜의 미래가 여전히 녹록지 않고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혜는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불타는 듯 보인다고 느끼며, 그런 나무들을 격렬하게 쏘아본다. 인혜는 무언가에 항의하듯, 저항적으로 그렇게 응시한다. 그리고 그녀의 응시는 “끈질기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인혜의 변화된 정체성과 욕망을 상당히 인상적으로 시각화한다. 이 지점은 그녀가 향후 억압적, 폭력적 체제에 생각 없이 순응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체제를 공략하며 탈주하는 비전을 내비친다. 마지막 장면의 구급차 안에서 인혜는 영혜의 귀에 대고 말한다. “어쩌면 꿈인지 몰라. [...] 꿈 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한강 2007:268). 이제 인혜는 더 이상 거울 속에서 피흘리던 눈을 바라보던 악몽에 무력하게 함몰되지 않는다. “고개를 들자,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물에 젖어 있다. 수없이 꿈에서 피를 흘리던 여자의 눈이다. 그러나 지금 그 여자의 얼굴은 울고 있지 않다”(한강 2007:260). 이 서술은 검은 새의 비상을 응시하는 인혜가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향후 적극적으로 자유를 추구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¹²⁾

12) 인혜가 가부장-상징계 질서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을 고려하면, 정미숙이 인혜를 가족의 질서와 이데올로기를 떠받드는 인물로만 간주하는 것은 그녀가

검은 새의 비상은 분명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고 폭력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역동적 이미지이다. 제 3부의 제목 ‘나무불꽃’도 인혜의 저항의 힘, 생명을 긍정하는 강렬한 열정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혜는 기존의 정체성이 유명이나 빈 껍데기처럼 소외의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그런 상태로부터 이행하고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혜는 어릴 적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집에 돌아가지 말자는 영혜의 부탁을 저버리고 그녀를 폭력의 세계로 내몰았던 것처럼 동생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 때문에 한동안 죄책감을 가졌다(한강 2007:208). 그러나 궁극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던 동생을 미워하던 언니의 모습에서 이제 강제로 미움을 주입하려는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며 동생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인혜는 동생이 유일하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자신의 몸밖에 없음을 이해한다(한강 2007:258-259). 이 순간 인혜는 동생과 더불어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생각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주체의 변화 지점에서 그녀는 폭력, 억압, 고통의 세계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하는 문제를 독자 역시 생각해보도록 요구하는 것 아닌가? 결국, 이런 암시적 질문을 던지는 인혜에게서 독자는 그녀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욕망으로서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한강은 『채식주의자』의 영혜와 인혜가 외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내적 폭력을 통해 일상적 차원에 편재하는

변화하는 비전에 대한 한강의 재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정미숙 2008:8, 27). 반면에 고윤경은 인혜가 가족의 도덕이란 틀로 영혜를 단죄하는 인물 이 아니라 영혜로 인해 변화하며 저항하는 비전을 읽어낸다(고윤경 2019:116-118, 고윤경 2025:221-222).

폭력의 평범성이란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주체성과 욕망의 차원에서 두 자매가 취하는 서로 다른 선택 속에서 폭력의 평범성에 대한 탈주 가능성을 다면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의의 실마리로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에서 이끌어낸 ‘폭력의 평범성’은 『채식주의자』에서 저자가 탐색하는 폭력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폭력의 평범성이란 외상적 진실과 마주해 영혜와 인혜가 겪는 고통, 두려움,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시도를 이해하는데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 역시 유용한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특히 영혜의 꿈에서 드러나는 충동, 무의식, 억압, 그 억압된 것의 언캐니한 귀환, 그런 귀환에 따른 진실과의 고통스런 대면, 그것에서 비롯된 증상들 뿐 아니라, 나무(식물)되기를 통해 고기와 연결된 동물성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주체와 욕망의 형성에 관한 라캉의 이론은 특히 가부장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이 되고자 했던 인혜의 주체 형성이 빚어낸 소외, 그리고 그런 소외에 대한 그녀의 각성, 가부장-대타자로부터의 분리, 자신의 주체성과 욕망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를 분석하는데 역시 적절한 틀을 제시한다.

결국, 폭력의 평범성에 초점을 둔 읽기는 『채식주의자』의 두 주인공이 가부장 사회에 널리 퍼진 폭력 속에서 자신의 내면도 그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절박하게 탈주하려는 복합적 시도의 양상과 의미를 밝혀준다. 거식증으로 죽어가면서도 가녀린 두 팔로 힘겹게 물구나무서서 나무가 되려던 영혜의 모습, 그리고 검은 새의 비상을 끈질기게 바라보는 인혜의 응시는 모두 탈주의 시도들에 대한 한강의 은유적 창조적 이미지들이다. 이런 재현 속에서 한강은 가부장-상징계의 의미화 영역에서 완전히 물러서는 것, 혹은 그 의미화의 영역 안에서 결여의 틈새를 벌리고 새로운 주체성과 욕망을 가진 존재로 거

듭나려는 것, 이 서로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영혜의 나무되기, 인혜의 각성과 변화 가능성의 조건이 되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이 선택한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필자는 영혜와 인혜의 서로 다른 방식을 한강이 독자에게 둘 중 하나만 배타적으로 취하길 중용하는 선택지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피로 물드는 고통의 악몽에 힘겨워하는 영혜와 인혜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뿌리, 즉 일상에 평범하게 만연하는 ‘폭력’이라는 역센 뿌리에서 초래된 문제이다. 두 인물의 선택 중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런 선택을 고심하게 만드는 원인인 외적/내적 폭력의 평범성이 먼저 고려되고 해소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요컨대, 마지막 장면에서 그려지는 어둡고 끈질긴 인혜의 눈길은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사려 없이 가하는 평범한 일상의 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주시해야 할 분별력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시선이기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윤경(2019), 「탈주하는 여성의 저항: 여성 저항 서사로 『채식주의자』 읽기」, 『여/성이론』 4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98-120.
- 고윤경(2025), 「한강 <채식주의자>, 참을 수 없는 그 여자의 난해함과 불온함: 무엇보다 계속해보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문학적인 것」, 『여/성이론』 5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9-224.
- 김석(2008), 「소외와 분리: 욕망의 윤리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결정적 순간」,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0:2,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55-76.
- 김선옥(2006), 「역자 서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옥 옮김(2006), 한길사, 13-24.
- 양석원(2018), 『욕망의 윤리: 라캉 정신분석과 예술, 정치, 철학』, 한길사.
- 이소연(2022), 「한강 소설 속의 몸 이미지와 정동(affect)의 서사담론: 『채식주의자』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91-117.
- 이인표(2025), 「『채식주의자』가 형상화하는 죽음 충동의 윤리 연구」, 『인문콘텐츠』 77, 인문콘텐츠학회, 239-257.
- 이현권·윤혜리(2020), 「무의식적 관점에서 본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정신분석』 31:4, 한국정신분석학회, 81-90.
- 장윤원(2025), 「비나 다스의 『삶과 말 *Life and Words*』을 통해 생각해 보는 사회적 고통: 상처를 삼키기, 살아내기 그리고 읽기, 쓰기」, 『여/성이론』 53,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15-129.
- 정미숙(2008), 「욕망,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욕망분석」, 『코기토』 6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7-32.
- 정진만(2025), 「실코의 『의식』에 나타나는 북미원주민의 소외, 분리, 그리고 연결을 향한 욕망의 윤리」, 『현대정신분석』 27:2,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365-398.
- 정화열(2006), 「악의 평범성과 타자 중심적 윤리」, 『예루살렘의 아이히

- 만』,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옥 옮김(2006), 한길사, 25-43.
- 주지영(2024), 「주체의 자기비판과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의 전회: 한강의 「나무불꽃」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4, 한국현대소설학회, 313-344.
- 한강(2007), 『채식주의자』, 창비.
- 한강(2024), 「빛과 실」, 2024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 The Nobel Foundation, <https://www.nobelprize.org/prizes/literature/2024/han/225027-nobel-lecture-korean/> (검색일: 2026.01.07.)
- 한귀은(2008), 「외상의 (탈)역전이 서사: 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하여」,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89-317.
-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옥 옮김(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한길사.
- 한나 아렌트 지음, 서유경 옮김(2019), 『책임과 판단』, 필로소픽.
- Das, V.(2007), *Life and Words: Violence and the Descent into the Ordinary*,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 of California P.
- Freud, S.(1953),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1900,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trans. James Strachey, vol. 4, London: The Hogarth Press.
- Freud, S.(1955),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1914,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trans. James Strachey, vol. 14, London: The Hogarth Press, 73-102.
- Han, K.(2015), *The Vegetarian*, trans. Deborah Smith, London and New York: Hogarth.
- Lacan, J.(1977a),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 Lacan, J.(1977b),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 by Jacques-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enguin Books.

- Lacan, J.(1997),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ed. by Jacques-Alain Miller, trans. Dennis Porter,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 Company.
- Lee, K.(2016), “Violence and Being Human: A Conversation with Han Kang,” *World Literature Today* 90.3-4, 61-67.

❖ ABSTRACT

A Flight from the Banality of Violence:
Focusing on Yeong-hye's and In-hye's Transition
of Their Subjectivity and Desire in *The Vegetarian*

Jeong, Jin Man
Yeungnam University

This essay examines how Han Kang, in *The Vegetarian*, explores the banality of violence through the inner turmoil of Yeong-hye and In-hye, and further envisions their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and escape. The concept of the "banality of violence," adapted from Hannah Arendt's "banality of evil," illuminates their internal psycho-somatic violence, manifested as anorexia nervosa (a fear of meat or animality), aggression, and self-torment.

Drawing on Freudo-Lacanian psychoanalytic thought, this essay discusses the unconscious or repressed traumatic memory (or dream), its uncanny and retroactively belated return, and the resulting pain, diverse symptoms, alienation, separation, subjectivation, and reconstitution of desire. This framework helps to elucidate not only Han's central concern that violence is pervasive and normalized in daily life, but also her earnest exploration of humanity's capacity to confront or reject it.

The two sisters, arguably, become aware of their inner violence as inextricably linked to patriarchal familial and societal violence, and they desperately attempt to escape its oppressive grip. This transition in their subjectivity and desire is visualized in Yeong-hye's eventual identification with a tree, signifying a complete withdrawal from the patriarchal-symbolic

domain, and in In-hye's persistent gaze toward a hawk-like blackbird, implying her ongoing resistance within that domain.

Keywords: Han Kang, *The Vegetarian*, banality of violence, subjectivation, desire, flight

- 논문투고일 : 2026. 04. 14
- 심사완료일 : 2026. 06. 05
- 게재확정일 : 2026. 06. 05

